

신학으로 배운 어린이 성경 동화 시리즈

3

구원의 시작



김문 글/그림

세상의 모든 아이들에게

신학으로 배우는 어린이 동화

♥ 성경 동화

1. 하나님의 창조
2. 인간의 타락
3. 구원의 시작
4. 하나님의 백성
5. 이스라엘의 실패
6. 진정한 이스라엘
7. 예수님의 구원
8. 오순절의 성령님
9. 예수님의 증인들
10. 완성될 하나님나라

♥ 교리 동화

21. 종교, 계시, 성경
22. 삼위일체 하나님
23.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24.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25. 예수님은 누구신가?
26. 예수님의 사역
27. 성령님은 누구신가?
28. 성령님의 구원 적용
29. 교회란 무엇인가?
30. 종말은 어떻게 오는가?

♥ 교회사 동화

11. 교부들의 유산
12. 이단들과의 싸움
13. 순교자들
14. 제국의 기독교
15. 교회 회의
16. 십자군 전쟁
17. 수도원 운동
18. 교회 개혁
19. 교단의 분열
20. 구학파와 신학파

♥ 실천 동화

31. 성도의 윤리와 도덕
32. 목회와 교회정치
33.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34. 설교에 대하여
35. 세례와 성찬
36. 교회의 권징
37. 심방과 상담
38. 직업과 소명
39. 전도
40. 선교

이렇게 모여들면 더 큰 죄를 꾸미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서는 먼저 이들을 세상 곳곳에 흩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흩어진 인류가

구원자를 중심으로 다시 모이도록

먼저 구원자의 모델이 될 한 민족을 선택하기로 하셨어요.

이 민족이 곧 이스라엘이에요.



어느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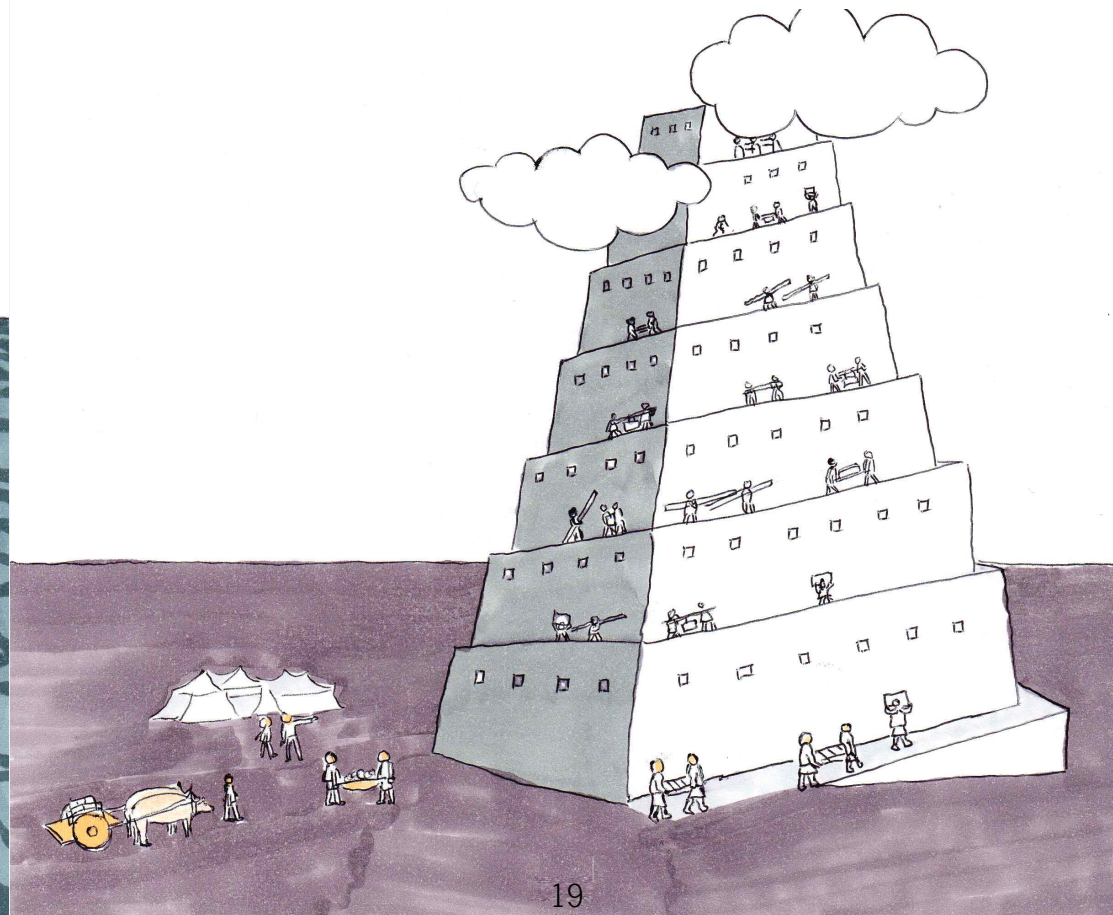
내가 만든 종이학이 망가져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당연히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야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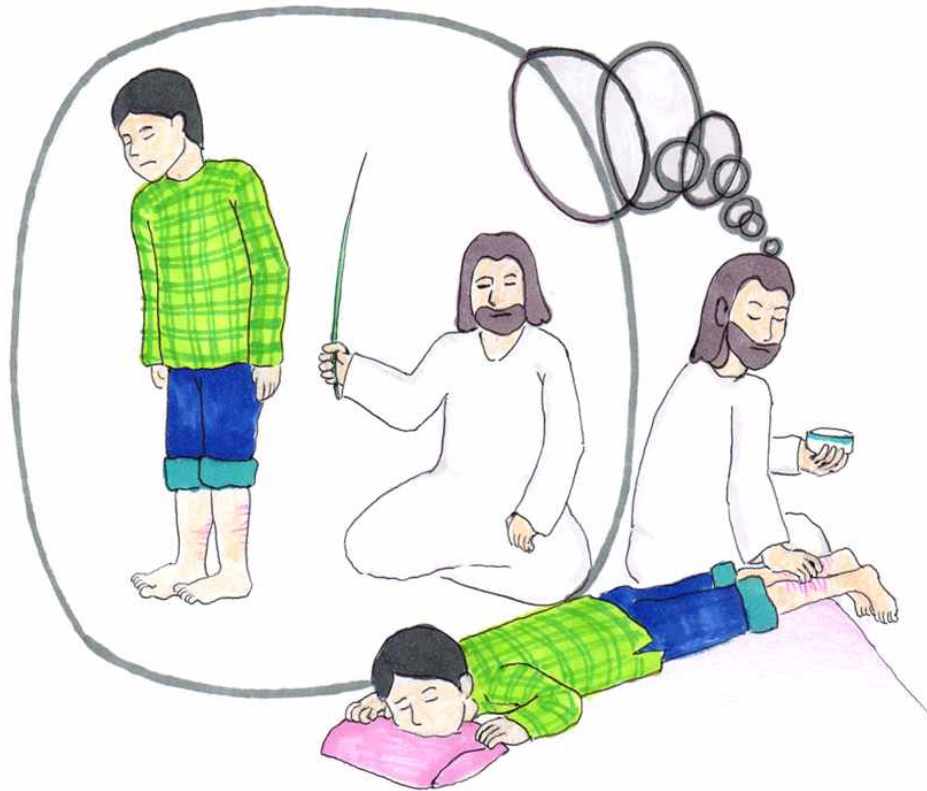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파괴된 창조세계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다시 원래의 창조 목적에 맞게
회복하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류는
다시 모여들어서 나쁜 일을 계획했어요.
첫 사람이 파괴했던 선악과의 경계선을
다시 범하려고 했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회초리로 자녀를 때린 아빠가
다시는 회초리를 쓰지 않겠다고 자녀와 약속한 셈이지요.



나는 내가 만든 종이학이 망가질 것이라 생각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게 될 사실을
미리 아셨던 거예요.



다 아시면서 창조하셨으니,
구원에 대한 계획은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어 하신 일이지만
이렇게 세상을 쓸어버리는 방식을
하나님께서서는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노아 가족을 포함한 창조세계를 향해
하나님께서서는 다시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쓸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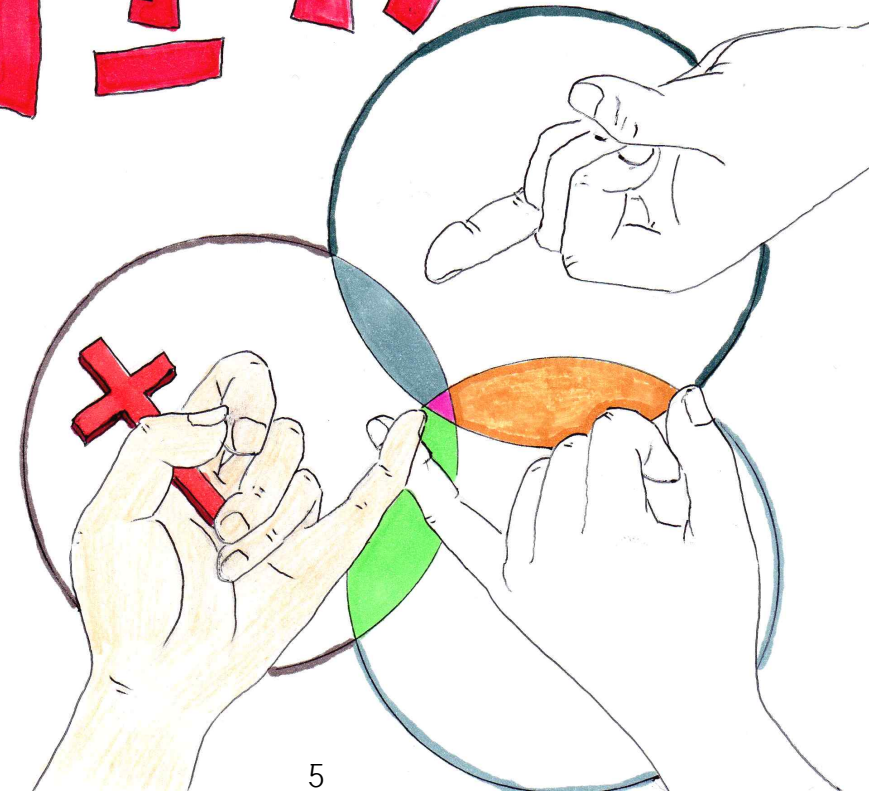


세상을 창조하실 때 수면 위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세상을 아름답게 꾸몄던 것처럼
 물로 청소된 회복된 창조세계의 수면 위에
 또 다시 생기로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일체이신 삼위 사이에는
 인류를 포함한 창조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약속이
 창조 전에 이미 있었어요.
 이 약속을 우리는 구속언약이라고 해요.

구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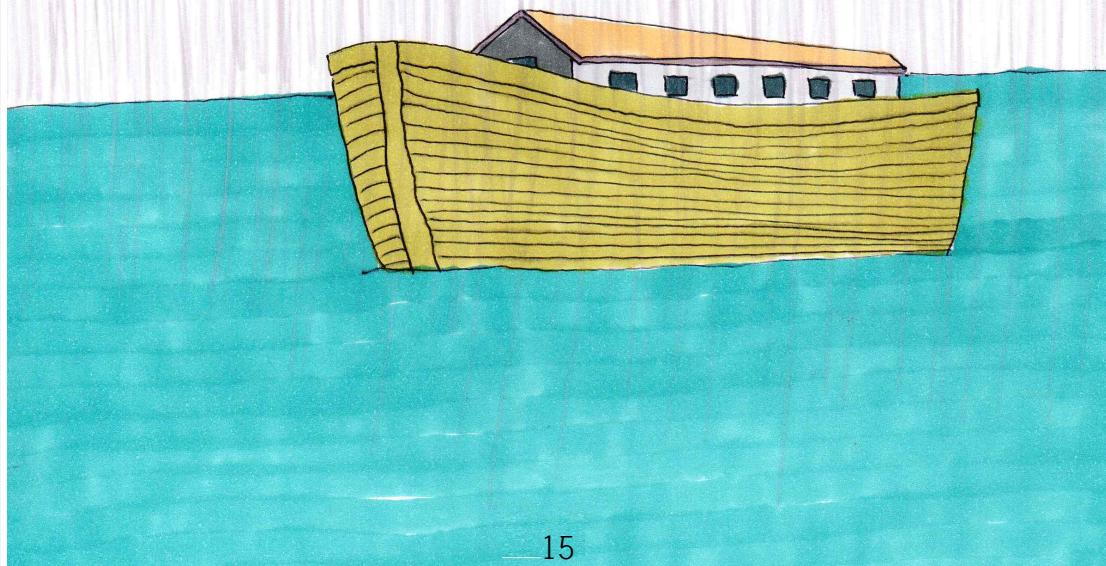


이 구원의 약속을 지키려는 실행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로 즉시 시작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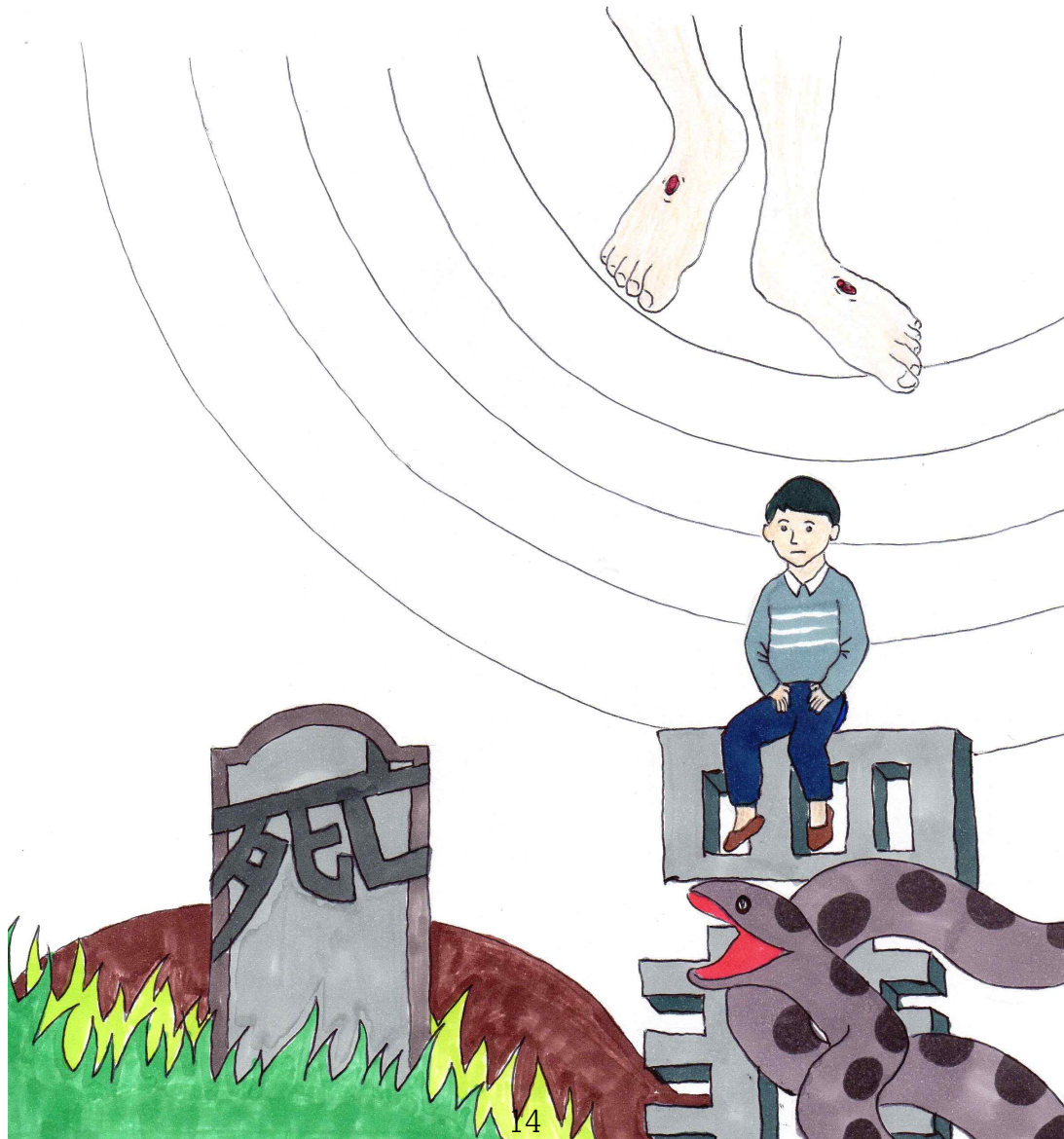
구원



죄의 결과는 심각했어요.
인류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타락하여
견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서는 이 상태를 회복하시기 위해
세상을 물로 대청소를 하셨어요.
깨끗한 것과 깨끗하게 회복하실 것만 남기시고
다 쓸어버리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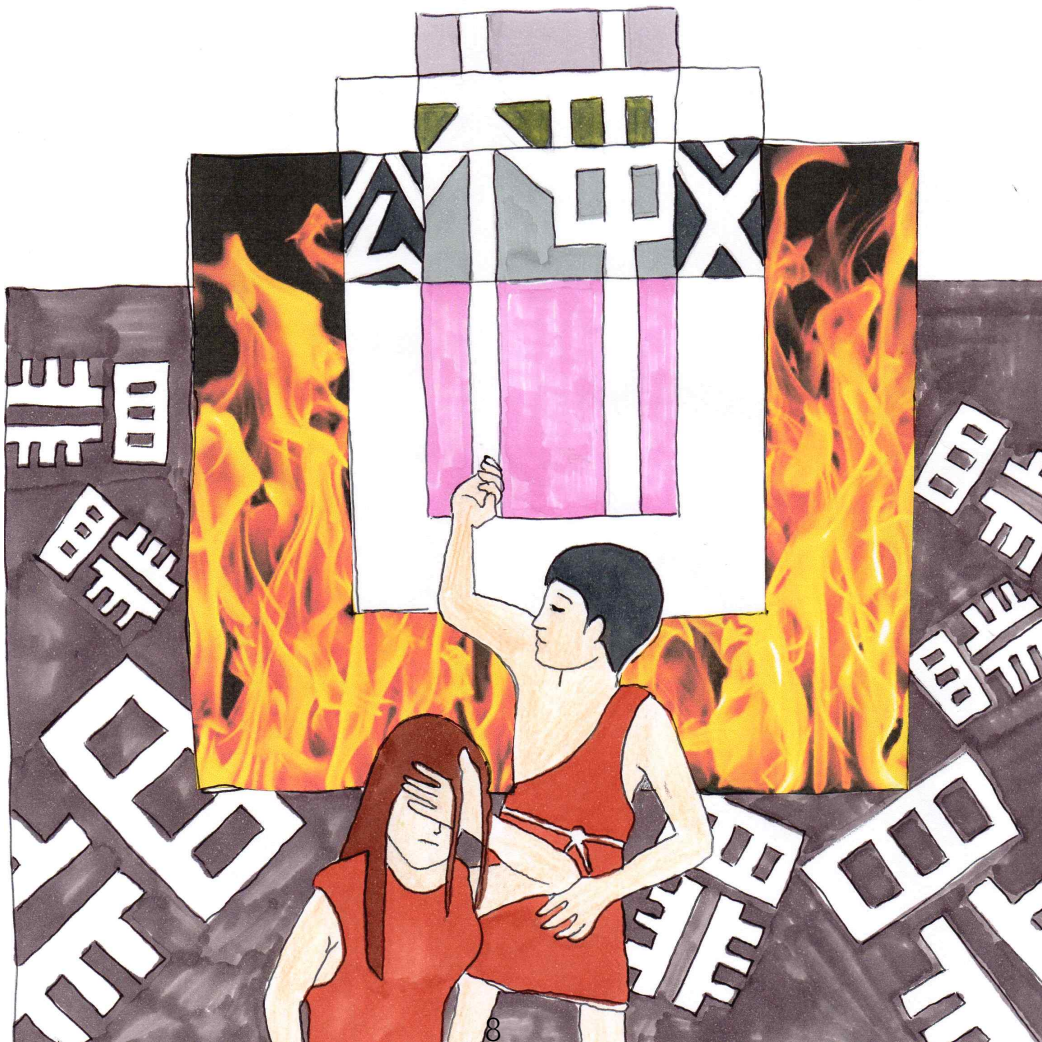
이 약속을 받은 인류는 죄와 죽음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구원자가 오기를 갈망하게 되었어요.



선악과라는 울타리가 사라져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경계가 파괴되자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대신하기 위해
자신이 계신 낙원에서 사람을 멀리 떨어져 살게 하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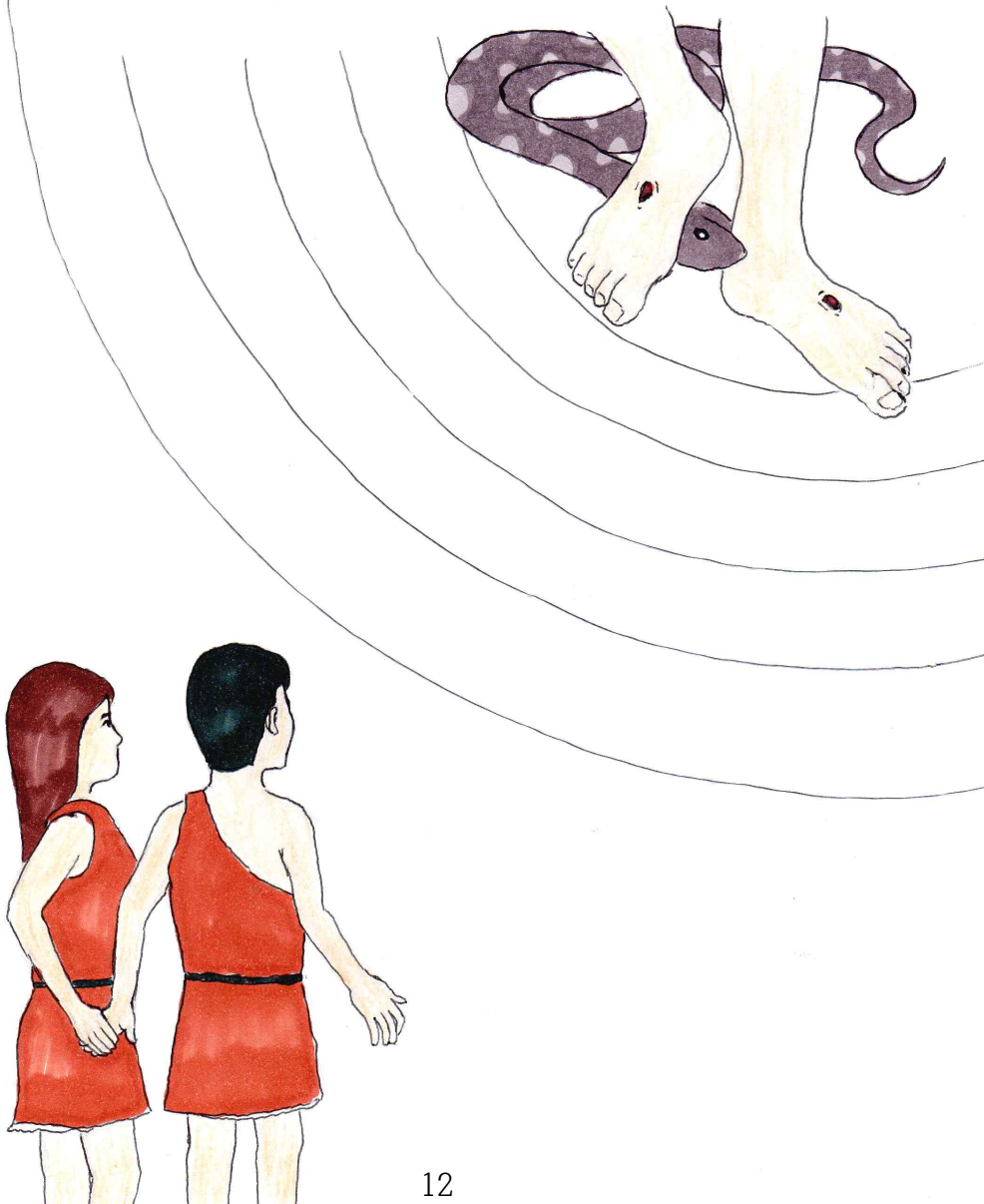
왜 멀리 떨어져 살게 해주셨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져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인류가 이 상태에 떨어지게 내버려두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 구원자는 곧 창조주이신 하나님 자신이지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에
 망가진 세상을 다시 고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에게 직접 약속하셨어요.
 구원자를 보내셔서
 인류에게 죄와 죽음을 가져온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름다운 상태로 회복하신 후에
 다시 낙원을 돌려주시기 위해
 그들을 먼저 낙원에서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에게 낙원의 입구를 지키게 하셨어요.
 회복된 인간에게 다시 주시기 전에는
 낙원이 잘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과 함께였을 때에는 완전했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자신의 몸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부끄러움을 가리게 해주셨어요.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죄를 지은 사람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이 죽어서
가죽을 제공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인류에게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